

▶ 보도일시: 2011.12.20(화) 석간,
<인터넷 12.20(화) 10:30 이후>
▶ 총 5 쪽

◆ 고용차별개선과장 양 성 필
서기관 김 동 욱

☎ 02-2110-7400 / 02-2110-740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현장예선...

-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
-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LG디스플레이·서울아산병원, 원청성과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배분
- 신세계백화점 양질의 보육시설 및 피트니스 시설 원·하청 공동이용

-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12.20(화),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과 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 지난 8월19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 * 위원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붙임 참조)
 -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4개 업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4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위원들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 하였다.

□ 이번 조사는 4개 업종, 243개소(원청 33개소, 하청 21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자동차와 조선**은 주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며

- 물류·청소 등 보조적인 업무외에도 의장·조립·도장 등 **생산 업무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와 서비스**는 고용유연성과 함께 **핵심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생산공정 등 **핵심적인 업무는 원청 근로자가 수행**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물류·포장·시설관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물류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활용하였다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 또한, 사업장별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우수하게 준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주요 우수사례는 아래와 같다.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주요 우수사례: 붙임 참조

○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서울아산병원**은 원청의 경영성과 일부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지급

○ **현대중공업**은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10년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원청보다 높게 책정

○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식당·휴게실 외에도 잘 갖추어진 보육 시설, 피트니스 시설을 원·하청 공동으로 이용

○ **서울성모병원**은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한 의료비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식당 이용시 식비도 원청과 동일하게 지원

- 이채필 장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청 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원청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 “서포터즈 위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박영범위원장은 “사내하도급의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주요 우수사례

- **(성과배분)** 대우조선해양은 원청근로자 성과급의 70%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지급
 - LG디스플레이는 원청의 이익배분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일정비율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 서울아산병원은 경영성과의 일부를 연말 특별보너스 형태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공유
- **(근로조건)** 현대중공업은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10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원청보다 높게 책정
- **(후생복지)** 신세계백화점은 식당·휴게실 외에도 잘 갖추어진 보육시설, 피트니스 시설을 원·하청 공동으로 이용하고
 - 서울성모병원은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부여(본인 70% 등)하고, 식당이용시 식비지원도 원청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노키아TMC는 '10년부터 '1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866명을 직접고용
 - 한국GM의 경우 '03년부터 '11년까지 1,400여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
 - 타타대우상용차는 노사합의를 통해 매년 10%(금년부터 15%) 수준으로 우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신세계백화점은 다른 백화점과 달리 안내직종과 계산원을 정규직으로 운영

<붙임 2>

업종별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조사·연구팀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및 직위	비 고
위원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총괄
자동차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	팀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경영학)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	
	박대출	서울신문 논설위원	
전 자	권 혁	부산대 교수(법학)	팀장
	이인재	인천대 교수(경제학)	
	박동욱	방송통신대 교수(환경보건학)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조 선	박희준	서울대 교수(경영학)	팀장
	김영문	전북대 교수(법학)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	
	김상호	경상대 교수(법학)	
	고대훈	중앙일보 편집국 행정국장	
서비스	권순원	숙명대 교수(경영학)	팀장
	김재훈	서강대 교수(법학)	
	최창곤	전북대교수(경제학)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이정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